

四象醫學을 繼承發揚할 唯一한 途徑

崔松男*

十九世紀末, 李濟馬先生이 창립한 四象醫學은 우리조선민족의 固有文化의 전통의학을 기초로 東方傳統醫學의 經驗을 총화하고 우리민족의 臨床實踐을 결합한 獨特한 醫學科學體系이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찬란한 文化遺産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遺産을 아끼고 繼承發揚하여 우리민족의 人類에 공헌하여야 한다.

1. 四象醫學이 傳統醫學에서 가지는 歷史的 地位

四象의학이 創立된 歷史時期는 中國淸나라 末期이다. 歷史記載에 의하면 朝中 두나라는 山水가 相連되어 自古로부터 來往이 밀접하였다. 中國의 西漢時期는 朝鮮의 “三國時代”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는 漢朝文化를 접수하여 文化交流와 醫藥交流를 하였는데 예하면 公元四세기 중엽에 中國의 漢文佛經과 儒家著作이 朝鮮에 轉入되요 公元373년 고구려에 “太學”을 설립하고 儒家經典著作을 教授하였으며 僧醫들은 道를 닦으면서 醫藥에 종사하였다. 이로부터 南北朝시대, 宋나라시대, 隋唐時代, 明나라시대에 와서는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그 정도가 醫藥融合景象이었다. 淸나라때 비록 명나라때보다 활약치 못하나 中國의 『本草綱目』, 『萬病回

春』, 『醫學入門』, 『醫宗金鑑』등 큰 서적들이 조선에 전입되고 朝鮮의 杰作『醫方類聚』, 『東醫寶鑑』도 中國에 전입되어 상호 의학발전을 추진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背景에서 李濟馬先生은 古今醫書를 統覽하신 다음 臨床經驗을 총화하여 創立한 것이 四象醫學이다.

李濟馬先生은 1836년에 誕生하시며 19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靑少年期는 舊學(四書五經)教育을 전수받았으며 그의 세계관은 儒家, 陰陽五行家の 사상으로 수립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李濟馬先生은 먼저 醫學家라기보다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것은 그의 첫번째 저작 格致藥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格致藥는 李濟馬先生이 儒家學說을 學習한 思想筆記이다. 그의 全部哲學思想의 基礎라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世界觀을 지도하에서 李濟馬先生은 “의학이 있어온지 4, 5千年후에 태어나서 옛사람들이 저술한 醫書를 공부하다 보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발견하였다.

四象醫學은 東洋의 哲學과 倫理를 근본으로한 창조적 새학설이다. 이 학설이 새롭다는것은 4, 5千年간 分化되어온 東方전통의학을 음양과 四象으로 高度의 集中한 그것이며 生物學적 器質에서 벗어나 倫理學的 社會의학으로 이끈 이것이라 보겠다. 오늘까지 東西古今의 醫學史를 펼쳐보면 100년전에

* 연변조선민족의약연구소

이렇게도 완전하게 生物醫學體系를 벗어나 社會醫學體系를 구성한 學說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四象醫學이 세계전통의학계에서 가지는 歷史的地位라 하겠다.

李濟馬先生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두루마기, 행주치마를 입은 사람들의 후대이다. 四象醫學을 계승발양하는것은 先祖에 대한 존경이고 後世에 대한 책임이므로 실속있게 연구하여 찬란한 민족문화로 세계에 공헌해야 하겠다.

2. 四象醫學의 가르킨 길

四象醫學이 誕生된지 近 100년간 이론탐구와 임상실천은 큰 발전을 가졌다. 그러나 아직 이론탐구는 已見발표에 불구하고 임상실천은 서적유품에 그치게되어 전면적으로 보면 보급단계였지 근본적인 제고를 가져오지 못했다. 현재 심열을 넣어 이론起源을 탐구함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四象醫學이 人類보건에 대한 실제적가치라 하겠다. 李濟馬先生은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嶄新한 길을 가르키셨다.

첫째, 체질과 의학의 결합. 李濟馬先生은 사람을 太陽, 少陽, 太陰, 少陰네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體質의 天稟과 後天의 關係를 解釋하면서 직접 醫學 診斷, 治療, 用藥에 結合시켰다. 數千年歷史에서 많은 學者들은 體質을 論하였으며 中國의 內經, 西洋醫學에서도 체질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를 醫療실천에 직접 결합시킨 역사는 없다. 그러므로 李濟馬先生의 體質學說을 醫療實踐에 結合시킨것은 一大發明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立說基點이 生物進化法則에 結合되므로 세계 서양의 학전통의학에서 점차 接受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킨 길의 하나라 하겠다.

둘째, 심리와 의학의 결합. 李濟馬先生은 사람의 性情을 喜怒哀樂으로 분류하고 性情이 臟器에 주는

影響을 解釋하면서 직접 醫學 診斷, 治療, 豫防保健에 結合시켰다. 醫學心理學歷史는 近代의 일이다. 東方전통의학에서 七情變化가 疾病에 대한 影響은 서술하였지만 직접적醫學結合은 前例가 없다. 그리고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醫學心理가 社會醫學模式의 중요한 組成部分으로 되었으니 100년전에 이미 결합한 事實을 또 우리에게 가르킨 길의 하나라 하겠다.

셋째, 약물과 생물의 결합. “藥乃局限于人”는 李濟馬先生의 獨特한 藥性觀이다. 自古로부터 歷代의 醫學家들은 “證”에 대한 약물의 반응을 중시하였지만 약물이 사람체질에 직접적관계가 있음을 홀시하였다. 그러나 四象醫學은 生物有機體. 약물에 대한 선택성을 중시하고 그를 사람의 氣質, 體質의 不同으로 나타난것이라 긍정하였다. 이것은 現代臨床藥物學에 符合된다.

물론 李濟馬先生이 創立하신 四象醫學에 우리에게 가르켜준 길은 많지만 上述한 이 세가지만은 그의 立說論點 應用實踐, 今後發展등 모든 方面에서 永遠히 自立할 수 있는 또한 날마다 발전하는 科學論點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李濟馬先生의 이 創立을 어떻게 평가하여도 고분하지 않다. 우리는 꼭 이길로 나아가 光宗耀祖하고 세계의학에서 應당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3 四象醫學을 繼承發揚할 途經

四象의학은 우리 조선민족의 전통의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世界전통의학의 새로운 학설이다. 이것을 繼承發揚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책임이다. 그러면 四象醫學을 어떻게 發揚繼承하여야 하는가? 현재 국제 전통의학의 발전 역사와 四象醫學의 散生, 發展歷史를 考察하여 볼 때 그의 生命力은 臨床實踐에 있었다. 東方傳統의학이나 四象醫學은 2千年前 儒家, 陰陽五行家의 學說을 指導로한 醫學

學說이다. 그는 당시의 생산력발전을 基礎로한 과학기술과 四象意識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2千年이 지난 오늘의 현대과학기술을 기초로한 생산력이 낡은 사상의식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이다. 그렇다면 2千年동안 번갈기우는 倫理사상 가운데서 전통의학학술은 왜 淘汰되지 않고 발전되고 계승되었는가? 그것은 그 臨床效果로써 역대의학자들의 계승과 발양을 흡인하고 인민대중의 받들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四象醫學도 이와 꼭같이 그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언정 임상실천에 주목을 두어야 旺盛한 生命力이 있을것이다.

四象醫學은 臨床의 가치가 그 어떤 전통의학보다 실질적 의의가 크다. 지금 세계적으로 생물의학模式이 사회의학模式으로 전환되는 이때 그 의의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라 할 수 있다.

四象醫學에서 體質辨象診斷學은 반드시 진척되어야 한다. 李濟馬先生은 體質辨象診斷을 太陽, 少陽, 太陰, 少陰등 네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성을 臟腑의 大小强弱生理現象으로 한 다음 性情, 行動, 態度, 容貌 등을 綜合分析하여 判斷하게 했다. 이것은 100년의 임상考察을 겪었다. 結果는 그 객관성이 不足하고 정확성이 결핍하다. 그간 血型, 體液등에 대한 연구와 고찰도 있었지만 理想的인 結果가 없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에서 診斷이 關鍵이라면 이것이 우리 조선민족 의학가들이 돌파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다.

다음 四象醫學에서 臨床醫學에 돌파가 있어야 한다. 李濟馬先生은 四象醫學에서 張仲景『傷寒論』六經病證을 運用하여 少陰人腎受熱表寒病, 少陰人胃受寒裏寒病, 少陽人脾受寒表寒病, 少陽人胃熱裏熱病,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 太陰人肝受熱裏熱病, 太陽人外感腰脊病, 太陽人內觸小腸病等 論治를 著述하였으며 后人들은 東武의 學說을 계승하여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診療醫典』等 數十冊을 出版하여 傷寒四象治療 經驗을 條理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상경험을 推崇하여 내상잡병의 診治原則도 著述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더욱 명확하고 설복력있는 臨床道路를 개척해야 한다.

또 四象藥物學도 진척시켜야 한다.

“藥乃局限于人”은 李濟馬先生이 창립한 藥性觀이다. 이는 사람체질이 약물에 대한 생물 利用度를 충분히 예견한 과학적 견해이다. 그러나 四象에 따라 약물이 획분된 고정불변은 形而上學일 뿐만 아니라 東武先生의 本意도 아니다. 그것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先生이 張仲景『傷寒論』少陰人經驗方 23個 少陽人 經驗方 10個, 太陰人 經驗方 4個 唐宋明 太陰人 經驗方 9個, 本草에서 引用한 太陽人單方 10個를 引用하였는데, 그 포함된 약물중에 太陰, 少陰, 少陽三象通用藥物이 20種, 少陰, 少陽通用藥物이 19種이나 된다. 그러므로 약물획분과 方劑組成에서 寒者熱治, 熱者寒治, 大者瀉, 小者補의 근본 治療原則과 藥物의 歸經과 作用방향 및 性味에 따라 活用을 연구 진척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李濟馬先生이 가르켜 준 길을 걸음에 나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생각이 있다.

첫째는 李濟馬先生의 四象醫學原理를 계승발양함에 힘써 보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 四象醫學의 精神支配는 수천년전 倫理를 基礎로 하였기 때문에 그 文章에서 글자절귀를 따질 것이 아니라 原理를 現代醫學科學知識과 結合해야할 것 같다.

둘째는 李濟馬先生의 本意를 把握하여 보려한다. 지금 여러 學者들이 論하다시피 八象論, 十六象論 등의 있는데 오래지 않아 三十二象, 六十四象도 連繫되리라 예견되는데 李濟馬先生께서 八象이나 十六象을 모르셔서 四象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제출에는 본인의 恰與其分の 도리가 있다 본다. 그러므로 繼承에는 먼저 그대로 하는 것이 李濟馬先生을 尊重하게 되며 原意를 추구함이라 하겠다.

셋째는 그렇다고 하여 李濟馬先生의 이름하에 마음대로 四象醫學을 創造發揚해서는 안될 것 같다.

예하면 四象藥物分類는 李濟馬先生의 本意로 계승
이 되지 못했다. 약물의 性味와 作用方向을 고려치
않고 고정불변한다는 것은 形而上學的 처리라 하겠
다.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先生은 藥物을 그렇
게 처리하지 않았다.